

I

수입제도 현안

1. 기타 사항

□ 베이징, 강소성 10월부터 분유 약국 판매 시범실시, ATM기계로 진위 식별 가능

- 10월부터 베이징, 강소성 2개 시범지역에서 소비자가 약국 분유 전용코너에서 안전하게 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실시
 - 8월 14일, 상무부 산하 중국국제무역학회 국제브랜드관리센터는 네슬레(雀巢), 듀맥스(多美滋), MeadJohnson(美赞臣), 와이어스(惠氏), 애보트(雅培), 이리(伊利), 성원(圣元) 및 Beingmate(贝因美) 등 업체대표 및 화룬(华润), 진상(金象), 가사당(嘉事堂), 국약(国药) 등 유명한 약국체인 대표를 소집하여 공동 구매, 통일배송 등 분유를 약국에 입점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
- 국제브랜드관리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유의 약국 입점 3단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힘
 - 1) 올해 10월부터 춘절까지 베이징 및 강소성 시행 완료, 그 중 베이징의 20개 약국에 분유 전문 판매대 설치
 - 2) 춘절 이후 소비능력이 강한 100개 도시를 선택하여 10,000개 약국으로 분유 판매 확대
 - 3) 2015년까지 400개 도시로 확대하여 10,000개 약국에 추가 입점
- 약국에서 판매되는 분유는 국제브랜드관리센터가 일괄 구매하여 배송하며 자동화기계(ATM모델)를 이용하여 판매할 것임
 - 구매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송과 판매 모두 기계로 일괄 관리하며, 소비자가 구매 완료 후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어 약국의 관리자도 제품을 접촉할 수 없도록 함
 - 약국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로 분유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며, 가짜 분유가 들어가는 경우 판매기 문이 닫히지 않음

- 설혹 가짜 분유를 들여 놓는다 하여도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 후 3초 안에 기계가 다시 자동으로 분유의 진위를 식별하게 되는 등 판매하는 분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함

□ 시사점/대처방향

- 10월부터 약국에도 분유가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한국 분유도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통한 소비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이어들과 협의를 통해 약국 입점추진 등 유통망 확대추진이 필요